

토착화 신학과 공동체 윤리 -해천의 효윤리를 중심으로

이 찬 석 (협성대학교 교수)

I. 서 론

II. 서양윤리와 동양윤리 - 개인윤리와 공동체 윤리

1. 서양윤리
2. 동양윤리

III. 기독교 윤리 - 동양윤리로서 공동체 윤리

IV. ‘효’ 윤리의 토착화 신학적 의미

1. 탈서구화
2. 주체적 토착화 신학
3. 성차별주의
4. 개인, 공동체 그리고 관계

V. 결 론

• **ABSTRACT** •

Seongbeum Yoon, who is a Koran indigenous theologian, suggested 'Sung Theology' as a Korean Theology in 1970's. His Sung Theology became the first Korean theology even though some Korean theologians evaluated it negatively. Later, Yoon investigated the Filial Piety of Confucianism, and suggested the theology of the filial piety focusing on ethics.

In the theology of filial piety, Yoon insisted that Western ethic can be called individual ethic but Eastern ethic is communitarian ethic. Interestingly, he categorized Christian and Judaic ethic as communitarian ethic. He clearly insisted that it is a seriously error to identify Christian ethic with Western individual ethic. Therefore, he insisted that Christianity and Judaism are not Western religion but Eastern religion, which based on the ethic of the filial piety, and began with the family.

Therefore, the first purpose of this article engaged on why Western ethic is individual ethic. The second purpose is why Eastern ethic becomes communitarian ethic. The third purpose is how Christian and biblical ethic are Eastern and communitarian ethic. Lastly, this article tries to evaluate Yoon's ethic of the filial piet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Indigenous Theology.

It is clear that Yoon's ethic of the filial piety contributed to Korean indigenous theology in the sense of Post-Westernization. Furthermore, it is more subjective Korean Theology than his Sung Theology. However, his notion of the filial piety does not liberate from Sexism, and identifies community with relationship.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mmunity and relationship should be differentiated. Furthermore, this article insists that Western thought and should be understood as 'relational thought focusing on individual', and Eastern thought as 'relational thought focusing commun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s a whole, this paper suggests that 'relationship' should be the key world for Korean Indigenous Theology and Christian ethic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 Words: Filial Piety, Yoon Sunghum, Korean Indigenous Theology, Eastern Ethic Community.

I. 서론

과연 오늘 가정이 정가(正家)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으로 일이관지된 가정인가 묻고 싶다. 동양 사회도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 가정생활도 합리화되고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집의 가정을 도맡은 가정생활로 자신의 천직을 삼았는데 반하여, 오늘의 여성은 남편과 함께 직장을 같이 나갔다가 저녁에야 같이 들어온다. 과거에는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인데 반해서, 오늘은 노부모를 양로원에 보내고 싶어 하거나, 시부모와 살려고 하지 않는다. 요사이는 단 둘이 사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며, 이러한 형태의 가족을 핵가족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개인주의화되고 합리화되는 경향에서 정가의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¹⁾

해천(海天) 윤성범은 당시의 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상실되었음을 절감한다. 핵가족으로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천은 서구의 개인윤리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해천은 서양윤리와 기독교의 윤리를 분리하고 있으며, 기독교의 윤리는 서양의 윤리가 아니라 동양의 윤리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는 해천이 윤리를 크게 개인윤리와 공동체윤리로 구분하면서 서양의 윤리는 전자에 속하고, 기독교와 동양의 윤리는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해천은 구약과 신약(예수)에게서 효(孝)의 근간이 되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읽어내면서 기독교 윤리를 공동체 윤리, 동양의 윤리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가 아닌 동양의 종교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천 윤성범의 ‘효’의 윤리를 살펴보고, 효의 윤리가 갖는 토착화 신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1) 「효와 종교」, 편집위원회 편, 『윤성범 전집3권』(도서출판 감신, 1998), 125.

논문은 해천이 서양의 윤리를 왜 개인윤리로 규정하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왜 동양의 윤리는 공동체윤리인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독교 윤리는 어떠한 점에서 공동체윤리로서 동양윤리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고 한다. 마지막으로 해천의 효 윤리를 토착화 신학의 입장에서 평가는 작업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비판적인 요소 각각 두 가지를 고찰하려 보려고 한다.

II. 서양윤리와 동양윤리 - 개인윤리와 공동체 윤리

1. 서양윤리

해천은 서양윤리의 특색을 공동체 윤리가 아니라 개인윤리라고 규정²⁾ 하면서 칸트를 서양윤리의 대표적 인물로 제시한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서양윤리의 연원은 희랍 사상에 있기 때문에 서양의 윤리관은 희랍 철학에까지 소급된다는 것이다. 희랍사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을 통하여 윤리적인 사상을 집대성하였는데, 이 책에서 공동체에 관한 진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개인에게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출발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공동체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식의 관념이 지배적이다 라고 해천은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 혹은 ‘친애’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공동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각도에서 공동체로 가능하다는 관념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리아(philía)의 관념인데, 필리아 개념은 하나의 상대적 윤리

2) 해천은 서양윤리에도 공동체 관념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양에서의 공동체 관념은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생각 해 본 공동체이지,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에게 이르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서양윤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더 근원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³⁾ “즉 희랍인들이 사용한 ‘필리아’와 ‘에로스’의 두 개념을 언제나 규정하는 또 하나의 개념, 즉 ‘아가페’의 사랑이 여기에 가담됨으로써만 ‘필리아’는 친애로, ‘에로스’가 생산적인 사랑으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⁴⁾ 결국 희랍철학에서는 위로부터의 사랑 혹은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친애와 애정의 규정원리가 희박하였고, 기독교 진리가 비로소 이를 해명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성서의 ‘아가페’의 사랑의 관념인 것이다.⁵⁾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도 의무를 숭상하였지만 공동체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고 해천은 주장한다. 인간이성과 세계이성의 동일시를 통해서 하나의 윤리적 보편성을 확보하였지만, 역시 참다운 사랑의 관념은 여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⁶⁾

근세 유럽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인데, 그의 윤리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인간 자신의 행동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의도가 윤리적 가치의 보편성을 이성에서 찾으려 한 것은 하나의 큰 윤리적 업적이지만, 개인적인 것으로 부가되어 버릴 경우에는 윤리라기보다는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이 칸트 윤리의 특색이라고 해천은 이해한다.⁷⁾ 칸트가 추구하는 이성의 규칙도 윤리의 규범이 될 있으나, 그것은 사유로부터 추상해낸 말하자면 순수 사유로부터의 연역에 불과하며, 따라서 보

3) 편집위원회편, 「효와 종교」, 『윤성법 전집3권』(도서출판 감신, 1998), 297.

4) 같은 책.

5) 앞의 책, 298.

6) 같은 책.

7) 앞의 책, 15~6.

통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칸트는 도덕법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식일 수는 있으나 인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규범이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⁸⁾ 칸트의 비판적인 추구에도 불구하고 그도 개인윤리(도덕)의 특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실천이성의 지상선은 덕이요, 이 덕의 관념은 스토아주의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고선이 이념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희생적인 사랑(아가페)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해천은 주장한다.⁹⁾ 칸트 이후 실존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새로운 윤리체계가 막스 쉐러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나 이것도 진정한 공동체 윤리의 결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천은 주장한다.¹⁰⁾

해천에 따르면, 서구윤리에 공동체 윤리의 가치 관념이 등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틴 부버이다. 부버의 ‘나와 너’라든지 ‘대화적인 생활’ 등은 유럽철학의 신기원을 가져 오게 되는데 여기서 단독자 개념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관계라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 등)¹¹⁾이 공동관계의 윤리사상은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F. 고가르텐,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 등에 의하여 받아지게 되었고, 철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타당성을 점차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천은 평가한다.¹²⁾

해천에 따르면, 기독교 윤리가 개인윤리가 아니고 가정 윤리임을 강조 하면서 공동체 윤리를 모토로 내건 신학자는 에밀 브루너이다. 왜냐하면

8) 앞의 책, 19.

9) 앞의 책, 298.

10) 앞의 책, 299.

11) 앞의 책, 299.

12) 같은 책.

그의 윤리적 초점은 가정윤리라는 공동체 윤리에다가 귀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브루너에 따르면, 결혼과 노동을 창조의 질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과 여(부부)의 관계가 가정윤리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과 여의 관계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해천은 반복해서 주장한다.¹³⁾ 그러므로 브루너의 윤리가 가정윤리인 점에서 서양윤리의 탈을 벗었다고 하겠지만, 남과 여라는 관계에서 가정을 규정하려 한 점에서 서양윤리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해천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주장한다.¹⁴⁾ “남녀 관계는 변화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비하여 부자관계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고 불변적이요, 상도(常道)라고 할 수 있다.”¹⁵⁾

해천은 칼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에다가 기독교 윤리를 집어넣고 생각한 것은 탁견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부모와 자녀’ 항목은 바로 동양적인 윤리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암중모색이지만,¹⁶⁾ 윤리 문제를 취급한 항목에서 먼저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순서로 언급되어 있음에 해천은 주목한다. 해천이 보기에 바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 윤리가 가정윤리이며, 가정은 남과 여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아주 서구적인 견해에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만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진지하게 다룬 학자도 별로 보지를 못했다고 해천은 바르트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바르트의 논술에서 해천이 유감스럽게 생각하

13) 같은 책.

14) 앞의 책.

15) 앞의 책, 303. “에밀 브루너 교수는 일찍이 그의 윤리에서 창조의 질서로서 결혼과 노동을 말한 바 있다. 이것은 그의 조급한 단안으로 보게 된다.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첫째 아들 아담을 흙으로 빚고 혼을 불어 넣어서 만드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서 이브를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들의 관계가 일차적이요, 그 다음에 이브가 등장하게 된다.(앞의 책, 289)

16) 앞의 책, 304.

는 것은 부자 관계에서 가정 윤리를 전개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⁷⁾ 결국 해천에 따르면, 브루너와 바르트가 함께 가정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¹⁸⁾ 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에 둔 것은 남과 여, 부부관계이며,¹⁹⁾ 그들은 단순한 애정 관계로서 형성되는 결혼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교의 경우나 그리스도교 본연의 사상에는 이 부자관계, 효의 관념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해천은 강조한다.²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서양 윤리의 특색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부버에 의하여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일어나서 공동체적 윤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것 역시 개인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인을 전제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개인에게로 향하는 윤리가 아니라, 개인에서 공동체로 향하는 윤리라고 해천은 서양윤리를 평가한다. 서구신학에서 에밀 브루너와 칼 바르트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지만, 해천의 이해에 따르면 그들의 가정 윤리의 중심은 부자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부자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부부관계는 변화개념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근거로 하는 가정 윤리는 한계가 있음을 해천은 분명하게 지적한다. 해천은 더 나아가서 서양 윤리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인데 서양의 자유개념은 절

17) 앞의 책, 29.

18) 해천은 본 회퍼도 공동체 윤리를 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브루너, 바르트, 본 회퍼 모두를 같은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기독교 윤리가 가정윤리임을 강조한 신학자로는 에밀 브루너 교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 윤리의 기간으로 삼아 전개시킨 학자로는 칼 바르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회퍼 같은 이의 공동체 이론에도 이러한 관념이 강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 가정윤리에서는 남과 여, 즉 부부로부터 시작한 것만은 사실이다.”(앞의 책, 288)

19) 앞의 책, 20~1.

20) 같은 책.

대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은 서양과는 달리 제약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서양윤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개념이다. 우선 서양 윤리, 특히 칸트의 경우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론적으로 자유는 모든 자연 필연적인 인과 관계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된다. 서양 윤리에서 본 자유는 하나의 가치의식에 불과하나, 동양의 자유 개념은 단순한 개인의 가치 의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절대자유가 아니고 어느 의미에서 제약적인 자유라 말할 수 있다.²¹⁾

2. 동양윤리

해천은 “서양 윤리를 개인 윤리라고 한다면, 동양 윤리를 공동 윤리라 불러서 어폐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양 윤리와 동양윤리의 차이성에 대하여 해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서양 윤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동양 윤리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의 질서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다. 서양 윤리는 인간을 이원론적, 분석적으로 보아서, 정신적인 것이 육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문제 삼는다면, 동양 윤리는 인간을 이원론적 종합적으로 보며, 따라서 한 인간이 한 다른 인간을 위해서 자유를 문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서양 윤리는 내재적인데 반해서, 동양윤리는 초월적인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²²⁾

21) 앞의 책, 19.

22) 앞의 책, 16.

서구 윤리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공동체 윤리의 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해천은 서양 윤리는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와 평등에서부터 윤리적 문제를 가져 오지만, 동양 윤리는 가족적인 효(孝)의 관점에서 윤리의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²³⁾ 결국 해천은 효를 중심으로 동양 윤리를 이해하면서 동양 윤리를 개인 윤리가 아닌 공동체 윤리로 규정한다.

해천은 유교를 중심으로 동양 윤리를 효 윤리로 이해한다. 유교에서 부자관계는 모든 인륜의 패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륜(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자유유서, 봉우유신)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자유친이라고 해천은 주장한다. 한 가족이 형성되려면 부부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종교적 윤리적인 질서를 가지고 따질 때에는 부자 관계가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부자유친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효임에 틀림없고, 군신이나, 부부나, 장유나, 봉우나 다 어느 때에는 갈라질 수도 있는 가변적인 인간관계이지만은 부자관계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불변적인 인간관계라는 것이다.²⁴⁾

부부관계는 오륜의 상(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오륜의 상은 부자 관계뿐인 것이다. 결혼과 노동이 창조의 질서이기 전에 부자 관계가 이것들의 존재근거가 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부자 관계는 동양윤리로 볼 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조의 질서라고 볼 수 있다.²⁵⁾

가정 형성의 중추가 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효라고 해천은 주장한다. 흔히 가정을 서구식의 관념으로 볼 때에는 남녀(부부) 사이의

23) 같은 책.

24) 앞의 책, 23.

25) 앞의 책, 24.

애정의 결합체로 보기 쉽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애정(사랑)과 의의 결합체라는 것이다.²⁶⁾ 즉, 부부관계는 애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부자관계는 애정과 의를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관계의 근거인 효는 애정과 의를 겸비하고 있는데, 서구 사회가 이 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혼은 날로 늘어나고, 이혼은 해서 안 된다는 예수의 교훈은 아랑 곳 없다는 듯이 교회까지도 이혼을 정당화해 나가는 형편이라고 해천은 지적한다.²⁷⁾

결국 “서양의 윤리는 이성을 규범으로 하여 전개되는데 반해서, 동양 윤리는 효를 규범으로 해서 모든 윤리적 문제가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이며²⁸⁾ 규범은 변하지 않는 상(常)인데 동양 윤리에서는 이것을 효로 보았다는 것이다.²⁹⁾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공경과 사랑을 의미하며, 효는 영구불변하는 상(常)이라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서양의 윤리는 윤리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서, 동양 윤리는 효 안에서의 자유와 효 밖에서의 부자유를 말하는 점이 다르다고 해천은 지적한다.³¹⁾

해천이 제시하는 서양 윤리와 동양 윤리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 윤리에서 있어서 자유개념은 단순한 개인의 가치의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유 같은 것은 아니고 제약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서양의 윤리는 윤리의 자율성을 주장하는데, 동양의 윤리는 효 안에서의 자유와 효 밖에서의 부자유를 말하는 점이 다르다.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 서양윤리의 성격이라면, 동양윤리에 있어서는 절대자유란 없

26) 앞의 책, 285.

27) 같은 책.

28) 앞의 책, 20.

29) 앞의 책, 18.

30) 앞의 책, 284.

31) 앞의 책, 20.

고, 오직 부자관계에서 본 제약적인 자유가 있을 뿐이다. 서양윤리는 자유, 사랑, 평등이 중요 관심사인데 동양윤리는 겸허, 질서, 평화가 중요 관심사. 서양윤리는 이성을 규범으로 하여 전개되는데 반해서, 동양윤리는 효를 규범으로 해서 모든 윤리적 문제가 풀려 나간다. 동양윤리는 결혼이전에 부자관계가 기본적인 가정윤리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III. 기독교 윤리 - 동양윤리로서 공동체 윤리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다 동양의 종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관계라는 전통적인 효사상에서 출발된 것으로 본다. 서구신학에서 보는 그리스도교 윤리는 유대적이거나 그리스도교적인 것과는 일단 구별해 놓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하나로 취급하면 곤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³²⁾

기독교는 원래 서양의 종교가 아니고 동양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해천은 “서양의 일반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와의 일치시키는 것은 큰 오류이다”³³⁾라고 주장하면서, 서양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구별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를 개인윤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로 이해한다. 해천은 더 나아가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공동체 윤리를 추구하는 동양종교라고 주장한다. 그는 유대교가 공동체 윤리를 추구한다는 근거를 구약성서로부터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를 개인윤리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교훈 가운데 “네 부모와 네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가지고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32) 앞의 책, 21.

33) 앞의 책, 17.

없다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부모에 대한 효에 반대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어느 하나도 하느님보다 상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이다.³⁴⁾

먼저 해천은 부자관계를 창조의 질서로 이해한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을 아담(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동시에 흙으로 빚어서 혼을 불어 넣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담과의 부자 관계를 형성해 놓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그의 아내 이브를 만드셨다고 해천은 주장한다. 결국 창조설화에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아담과의 관계가 수립된 후에 부부의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³⁵⁾ 즉, “창조설화에서 하늘 아버지가 땅의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 천부와 아담의 부자관계가 형성된다. 이다음에 가서야 이브를 아담의 갈비대를 하나 취하여 만드셨다.”³⁶⁾ 에밀 브루너는 결혼과 노동을 창조의 질서로 설정하고 있지만, 해천은 결혼과 노동 이전에 부자관계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해천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브루너는 창조의 질서를 “결혼과 노동”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된 질서는 바로 천부와 땅의 아들 아담과의 부자 관계인 것이다. 이것이 원초적인 창조의 질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34) 앞의 책, 287.

35) 앞의 책, 21~2.

36) 앞의 책, 310.

37) 같은 책.

창세기의 창조설화는 무엇보다도 부자 관계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부수적으로 남녀 간의 관계가 문제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부자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요, 부부관계는 우연적인 것이다.³⁸⁾

해천에 따르면, “신약성서의 중심사상은 부자유친 사상으로, 즉 효로 일이관지(一以貫之)된다”³⁹⁾고 할 수 있으며, “『신약성서』의 신앙 구조는 무엇보다도 성부(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⁴⁰⁾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되어지는 말이지만, 해천에 따르면, “『신약성서』의 사상에는 사실 부부 관계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은 없다”⁴¹⁾는 것이다.

신약에서 부부 관계가 신앙과 생활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은 없다. 바울은 도리어 부부관계는 어느 의미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남자는 결혼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까지 말하였다 (고전7:8)⁴²⁾

해천에 따르면, 예수 자신의 신앙이란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복종과 사랑이었고, 예수의 삶과 죽음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공경으로 충일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신앙, 이것은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라고 부르면 적절하다고 해천은 주장한다. 그런데 신앙이라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보면서 효심이라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교를 서구화해서

38) 앞의 책, 22.

39) 앞의 책, 288.

40) 앞의 책, 22.

41) 같은 책.

42) 같은 책.

받아들이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천은 지적한다.⁴³⁾

요한복음에는 하느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요14:7)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를 위한 위탁이 속죄 제물이 된 것이다. 끝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뢰와 위탁이 아들의 태도였던 것이다. 예수의 신앙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충성에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배울 것은 바로 이러한 부자 관계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두고 말한다. 예수라는 인물의 개인의 뛰어난 점을 배우는 것은 아니다.⁴⁴⁾

예수가 열두 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양친을 따라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예수가 일행 중에서 없는 것을 알게 된 부모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는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는 양친은 “네가 어찌하여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때 어린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대답한 일이 있다.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것,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고 대답한 것 등을 효도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해천은 효경에 근거하여 예수의 효를 말한다. 『효경』에 의하면 “우리의 몸과 터럭이나 피부까지도 다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으로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인격을 완성하고(立身), 도를 행하여(行道), 이름을 후세에 남김으로 부모를 나타내게 된다면 이것은 효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효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서

43) 앞의 책, 288.

44) 앞의 책, 23.

는 안 되고, 자기의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마지막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격을 완성하고, 도를 행하여, 부모의 이름을 후세까지 들어 낼 수 있어야 효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⁴⁵⁾

결국 해천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행하는 것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자(夫子)됨을 믿는 그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육친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마침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까지 닿는 것이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해천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도교 윤리가 서양의 개인윤리에 의하여 효의 기본사상을 잊어버리고, 남녀 간의 애정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교는 원래 동양종교였다. 모든 사교 양식이 동양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본연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해 버려야 된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윤리적인 생활은 파경을 가져올 것이고, 가정은 파경 되고, 조국은 없어지고, 물질과 향락으로 일삼는 유흥장화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⁴⁷⁾

45) 앞의 책, 31.

46) 앞의 책, 310.

47) 앞의 책, 290.

IV. ‘효’ 윤리의 토착화 신학적 의미

1. 탈서구화

한국 신학이나, 아시아 신학 등 제3세계 신학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신학적 과제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탈서구화, 비서구화이다. 남미에서 시작되었던 해방신학도 신학의 탈서구화를 시도하였다. 서구신학이 이론 위주의 신학이었다면 해방신학은 실천(praxis) 중심의 신학임을 선언하면서 서구신학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였다.⁴⁸⁾ 한국의 토착화 신학도 한국의 주체적 신학을 형성하기 위하여 신학적 비서구화를 추구하였다.

근래에 이르러 특히 탈식민적 담론(postcolonial discourse)이 등장하면서 서구의 제국주의와 기독교의 협력, 공모가 밝혀지면서 탈식민지화와 탈서구화의 연관성은 더욱 강조되어지고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에 따르면,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서구를 우월한 것으로 동양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동양을 식민지화하였다. 서구의 선교사들은 아시아의 종교들을 열등한 것으로, 기독교를 우월한 종교로,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진리로, 아시아의 종교들은 우상으로 규정하였다. 탈식민적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서구와 동양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해야 한다. 신학적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탈서구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 중의 하나이다.

48) 물론 피에리스와 같은 아시아 신학자는 해방신학은 아직도 서구신학이라고 평가한다. 피에리스는 남미의 해방신학이 종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신학 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남미의 해방신학은 칼 맑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칼 바르트의 영향으로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천은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동양의 종교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탈서구화한다. 아시아 신학자인 알로이시어스 피에리스(Pieris)도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고 아시아 종교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아시아는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모든 경전종교들이 태어난 요람이다. 그리스도교는 일찍이 이 요람을 떠났고 십 수세기가 지난 뒤에 억지로 이방인으로, ‘침입자’로 돌아왔기에 아시아는 한사코 이 종교를 맞아들이기를 거부해 왔다.”⁴⁹⁾

해천이 기독교를 아시아(동양)의 종교로 규정하는 근거는 지역성이 아니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 특히 예수의 윤리이다. 예수 윤리의 핵심은 부자유친의 관계를 근본으로 하는 가정 윤리, 공동체 윤리이기 때문에 서양적이지 않고, 동양적이라고 주장한다. 서양의 윤리는 개인윤리인 반면에 동양의 윤리는 공동체 윤리인데 예수의 윤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효를 실천한 효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동양적 종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천의 효 윤리는 기독교의 탈서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해천은 효 윤리를 향한 기독교의 동양화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함으로써 탈서구화를 넘어서서 기독교의 동양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토착화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탈식민적 기독교를 형성하기 위하여 식민주의 시대의 잔재인 동양에 대한 편견은 수정되어야 하며, 서구적 편견과 결합되어 있는 기독교 이해는 탈서구화의 과정을 통하여 아시아화하는 끊임없는 신학적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천의 효 윤리가 아시아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효를 중심으로 예수와 기독교의 윤리를 재 사유하는 것과 같은 신학적 작업들이 계속 되어질 때 한국신학과 아시아 신학

49) Aloysius Pieris,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성염 역, 『아시아 해방신학』(분도출판사, 1988), 180.

은 성숙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주체적 토착화 신학

해천의 토착화 신학은 사실 ‘효의 신학’ 이라기보다는 ‘성(誠)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해천은 『한국적 신학』이라는 책을 통하여 성의 신학을 제창하였다. 해천은 성의 신학에서 율곡의 성을 중심으로, 한국적인 성의 개념을 가지고 한국적 신학을 시도한 것이다. 해천은 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중용의 ‘불성무물’(不成無物)을 통하여 성의 창조성, 초월성을 강조하고, 성(誠)을 말씀(言)+이루어짐(成)으로 해석하면서 성육신의 한국적인 표현이 성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인 ‘다 이루었다’고 말씀의 이루어짐(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의 신학을 제창하면서 해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본질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다. 계시, 궁극적 존재, 새 존재, 말씀 등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칼 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에서 가장 그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 동양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마치 계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 개념에 해당하면서도 그것이 신학적인 도식으로 보아서 잘 유의되는 개념이 바로 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⁵⁰⁾

해천의 ‘성의 신학’에 대하여 이정배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윤성범

www.kci.go.kr

50) 편집위원회, 「한국유교와 한국적 신학」, 『윤성범전집2』(도서출판 감신, 1998), 36.

의 관심은 “시종일관 율곡의 성 개념을 바르트 신학의 눈으로 읽으려고 하는 데 있었으며……”⁵¹⁾ 김광식도 비슷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윤박사는 서양신학 중에서도 바르트의 교의학을 모범으로 삼아 이것을 한국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윤박사는 은연중에 이미 바르트 신학은 기독교의 진리와 동일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박사의 신학적 토착화는 아무리 해도 바르트 신학의 한국화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⁵²⁾

해천은 한국신학이 서구신학의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서구신학으로부터의 해방되어진 주체적인 한국적 신학을 시도한 것이 성의 신학이었지만, 성의 신학은 결국 바르트 신학의 한국화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의 신학은 한국적 신학이라 평가되어지면서도 서양신학, 특히 바르트 신학을 한국적 성의 개념을 통하여 번역한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효의 신학은 서구신학을 한국적으로 번역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구신학, 특히 서구신학의 윤리를 기독교의 윤리와 분리시키면서 기독교 윤리를 아시아의 윤리, 한국적 윤리인 효와의 일치를 통하여 주체적인 한국신학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천의 효의 신학과 효의 윤리는 성의 신학보다는 더 주체적인, 진일보한 토착화 신학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51) 이정배, 『한국 개신교 전위 토착신학 연구』(대한기독교서회, 2003), 143.

52) 편집위원회, 「한국유교와 한국적 신학」, 『윤성범 전집2』(도서출판 감신, 1998), 341.

3. 성차별주의

해천의 효의 윤리가 갖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역시 성차별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해천에 따르면 부자(夫子)는 창조의 질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부녀(父女)라는 관계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분명하게 주장한다.⁵³⁾ 그러나 해천은 모자(母子)나 모녀(母女)의 관계는 창조질서로 이해하지 않고 있으며, 효의 근본적 구조로서 제시하지도 않는다. 해천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주장한다.

예수는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으며,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로 시작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인 것이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올바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질서가 주어져야 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가장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⁵⁴⁾

해천이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예수의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가정을 통하여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는 어머니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어머니는 애정이 앞서지만은, 아버지는 위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애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별나다. 어머니의 단순한 애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버지의 엄한 교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는 자애스러운 면도 겸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과 위

53) 편집위원회 편, 「효와 종교」, 『윤성범 전집3권』(도서출판 감신, 1998), 25.

54) 앞의 책, 355.

엄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교육적인 패턴은 부자유친의 관계에서 찾아야 됨이 확실하다 하겠다.⁵⁵⁾

해천이 강조하는 점은 어머니는 자애로운 면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는 자애와 엄한 교훈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는 사랑만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는 사랑과 의를 함께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단지 사랑만이 아니요(愛), 의를 겸유하시고 계시다(敬).”⁵⁶⁾는 것이다.

송성진에 따르면, 해천이 『효경』을 근거로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효경이 말하는 비는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가 그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미묘한 차이를 갖게 된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즉, 섬김의 대상이 어머니이면 그 마음의 자세는 애(愛)이고, 그 대상이 임금이면 그의 마음 자세는 경(敬), 그 대상이 아버지이면 그 마음 자세는 애경(愛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천은 효경의 본문상의 애와 경과 애경 등이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해천은 효경 본문이 어머니는 다만 애정의 존재이고, 아버지는 애정과 위엄을 겸한 존재로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⁷⁾ 현대신학과 윤리에서 자연의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는 신학은 신학과 윤리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남성중심적인 신이해가 자연과 여성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여성중심적인 신이해를 중심으로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변혁시키려는 노력이 추구되고 있다. 해천의 효 윤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55) 앞의 책, 25~6.

56) 앞의 책, 303.

57) 송성진, 「해천 윤성범의孝의 신학」, 『신학과 세계』(제 56호, 2006년 여름호), 78.

성차별주의는 분명히 극복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4. 개인, 공동체 그리고 관계

해천은 당시 한국교회의 윤리적 한계를 서구의 개인주의의 유입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며, 서구의 개인주의는 서구 신학에도 영향을 주어서 서구신학도 개인윤리로 변하였기 때문에 윤리적 극복의 대안으로 공동체의 윤리인 효의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해천의 효의 신학과 윤리에서 이 불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서양과 동양이며,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공동체주의에 윤리적 약점은 존재하지 않는가? 또한 개인주의에 윤리적 강점은 존재하지 않는가?

아시아 신학자인 토마스(M. M. Thomas)는 기독교가 아시아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아시아 사회는 대가족과 촌락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었는데, 이 두 공동체는 개인을 공동체에 일치시켰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계급적 질서를 가져 왔다고 지적한다.⁵⁸⁾ 미국 드루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웨슬리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h)도 아시아의 전통사회는 카스트 제도나 황제숭배와 같은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한다.⁵⁹⁾ 공동체적 윤리가 개인의 독자성보다는 타자와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독립적인 자유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제한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질서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체주의가 억압적인 질서를 정당화시켜주는 집단적 이

58) M. M. Thomas, *The Christian Response to the Asian Revolution*, (London, England: SCM Press LTD, 1966), 37. 이찬석, 「탈식민지론과 아시아 신학」, 『신학사상』(141집, 2008 여름호), 94.

59) S. Wesley Ariarajah, "The Asian Struggle to Understanding the Human" ed., *Hans Uco, People of God, Peoples of God: A Jewish-Christian Conversation in Asia*, (Geneva, Switzerland: WCC Publication, 1996), 37. 이찬석, 앞의 글.

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분명한 구별 없이는 아시아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인식하는데 실패한다.”⁶⁰⁾ 조화와 질서의 차원이 아닌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의 측면에서 공동체 윤리를 본다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억압의 구조를 정당화 시켜 주는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천이 제시하고 있는 부자유친을 근거로 하는 효의 윤리가 아버지의 측면에서는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아들의 측면에서는 본다면, 아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희생은 당연한 도리이겠지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희생을 강요하는 효는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지배자, 강자의 위치에서 윤리를 평가하느냐? 피지배자, 약자의 편에서 윤리를 평가 하느냐?의 문제는 상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윤리는 위로부터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천의 성의 신학의 한계는 “민중사관의 결여”⁶¹⁾에 있다는 박종천의 비판은 효의 윤리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토마스(M. M. Thomas)는 아시아의 전통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였다고 규정하면서 서구의 기독교가 아시아에 들어오면서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개인주의가 아시아 땅에 들어오면서 아시아 사회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감리교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박봉배도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혈연이나 지연관계를 초월하여 어떤 이념적인 근거를 가지고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였다고 생각한다.”⁶²⁾라고 주장한다. 즉, 노예제도철폐, 다른 계급사이의 결혼

60) Lee, Chanseok, *The Christological Perspectives of Panikkar and Byungmu Ahn: Toward an Asian Christology* (Germany, VDM Verlag Dr. Muller, 2008), 187.

61) 박종천, 『상생의 신학』(한국신학연구소, 1991), 32.

을 감행을 시도한 것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충북대학교 김용환 교수는 ‘현대사회의 효 윤리에 관한 연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처럼 전통사회 효 윤리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유교의 신념체계에서는 가족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합리적 질서를 위축시키고 혈연에 근거한 인정의 씨족질서를 부각시켜 합리적 공정성을 훼손시키게 된다.⁶³⁾

더 나아가서 김용환 교수는 “미래지향적 효 윤리의 과제로서 자식에 대한 타자로서 부모의 어머니 됨을 존중하되, 자식으로서의 타자성을 부모로부터 인정받아 서로 존중되는 다원적 관계임을 부각시켜야 한다.”⁶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를 부모의 분신이나 소유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타자지향의 포용성을 지닌 보편적 추구가 요청”⁶⁵⁾된다고 강조한다. 부모에 공경과 더불어 자식의 타자성, 인격적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천의 효의 윤리는 아시아의 윤리로 서구윤리를 돌파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윤리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동양의 윤리를 재사유하는 신학적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때 한국의 토착화 신학을 위하여 효의 윤리는 더욱 큰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결국 서양은 개인, 아시아는 공동체라는 대립적인 구도에서 기독교 윤리와 아시아 윤리를 동일시하면서 서구 윤리에 대한 비판을 통한 한국의 주체적 신학을 정립하기보다는 ‘관계’를 중심개념으로 삼고 아시아의 공동체 윤리와 서

62) 박봉배, 『기독교 윤리와 한국문화』(성광문화사, 1983), 299.

63) 김용환, 「현대사회의 효 윤리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제53호), 260.

64) 앞의 글, 270.

65) 앞의 글, 281.

구의 개인 윤리를 상호비판적으로, 상호생성적으로 사유할 때 한국의 토착화 신학은 더욱 발전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와 신학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실 해천은 기독교 윤리와 동양 윤리는 공동체 윤리이며 관계의 윤리라고 규정하면서 공동체와 관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동체만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개념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개인의 절대적 자유라는 개념도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독자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라는 개념은 개인과 공동체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개념이며,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양의 윤리를 개인윤리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윤리’, 동양의 윤리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의 윤리’라고 규정하면서 ‘관계의 윤리’라는 차원에서 효 윤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상호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 속에서 한국적 신학함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V. 결 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적인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의 두 축은 한국 신학의 형성에도 중심적인 과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한국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독교와 복음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적인 것들을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토착화 신학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해천의 효윤리는 한국적인 효의 개념으로 복음과 기독교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전술하였듯이 한국적인 가치와 개념도 기독교 복음의 입장에서 재 사유되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문화가

서양에 의하여 서구화되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규정함에 있어서 서양적인 것과 불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 과거지향적인 특색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의 혼종(hybridity)적인 상태가 현재 한국의 문화와 윤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아시아)과 서양을 이항대립적인 구도에서 설정되어지는 개념보다는 둘을 아우르는 개념을 토대로 한국신학과 기독교 윤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효의 윤리가 아시아적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동일화를 통하여 탈서구화와 주체적 한국신학의 정립이라는 큰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신학과 윤리를 위하여 효의 윤리는 공동체와 관계를 동일시하기보다는 공동체가 참다운 관계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관계중심의 신학과 윤리로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용환, 「현대사회의 효 윤리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53호.
박봉배, 『기독교윤리와 한국문화』, 성광문화사, 1983.
박종천, 『상생의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91.
송성진, 「해천 윤성범의孝의 신학」, 『신학과세계』 56호, 2006년 여름.
이정배, 『한국 개신교 전위 토착신학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3.
이찬석, 「탈식민지론과 아시아 신학」, 『신학사상』 141집, 2008 여름.
편집위원회 편, 『한국유교와 한국적 신학』 윤성범전집2권. 도서출판 감신, 1998.
_____, 『효와 종교』 윤성범 전집3권. 도서출판 감신, 1998.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선학사, 2005.

Chanseok Lee, *The Christological Perspectives of Panikkar and Byungmu Ahn: Toward an Asian Christology*, Germany: VDM Verlag Dr. Muller, 2008.

M. M. Thomas, *The Christian Response to the Asian Revolution*, London, England: SCM Press LTD, 1966.

S. Wesley Ariarajah, "The Asian Struggle to Understanding the Human" ed., Hans Uco, *People of God, Peoples of God: A Jewish-Christian Conversation in Asia*, Geneva, Switzerland: WCC Publication, 1996.

논문접수일: 2009. 4. 30.

심사개시일: 2009. 5. 12.

게재확정일: 2009. 5. 20.